

1.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무엇인가요?

▶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학 입학정원 감축과 특성화를 목표로 올해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가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우리대학은 2015년 평가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재정지원사업 신규 참여 제한, 2016년 신입입생에 한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 등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016년 신입입생의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지급분에 대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특성화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은 반면, 우리대학의 강점인 국제화 및 연구 부문은 평가에서 배제되어 이 점이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참고로, 교육여건, 연구, 국제화, 평판도를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경우, 우리대학은 평가에 참여한 전국 상위 130여 개의 대학 중 50위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분야의 경우 전국 20위권 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교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육부의 급작스런 본분교 분리평가 시행에 따라 고려대학교 내 안암-세종캠퍼스 간의 연계된 장점(이중전공, 복수전공 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참여, 교육환경 공유 등)이 반영되지 못해 세종캠퍼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교육역량과 혜택이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단계 및 2단계 평가 후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아직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4. 학생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요?

▶ 아닙니다. 장학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교내 장학금은 기존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오히려 기존의 장학금보다 더 확대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6년 신입입생들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대한 부분 또한 학교에서 전액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국가장학금 I 유형	기존대로 지급 (제재 사항 아님)
국가장학금 II 유형	기존대로 지급 (단, 2016 신입입생은 학교에서 지급)
학자금 대출	기존대로 대출 (제재 사항 아님)

5. 우리대학이 부실대학에 해당하나요?

▶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학평가에서 연구 및 본분교 연계 등 우리대학이 가진 장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일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평가되었으나, 재정건

전성이 열악하고 학생충원율이 낮은 부실대학과는 무관합니다.

6. 평가 발표로 인해 취업 준비 중인 학생들의 타격이 클 텐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이번 대학평가결과로 인하여 대학 평판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월 둘째 주 7~9일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를 통해 세종캠퍼스의 객관적인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 평판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차원의 취업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졸업생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 향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 우리대학은 본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도개선 및 자원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총장 이하 전 집행부와 교직원들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타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